

OUR NATION

안양을 향한 '우리의' 이야기



FCANYANG, OUR STORY - 25.09.14

06

Our Column

同苦同樂 : 동고동락

08

Our Interview - 1

김정현 선수 인터뷰

10

Our Interview - 2

김지훈 선수 인터뷰

오늘의 일상도 걱정없이

Enhance Your Everyday

오상헬스케어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생화학, 면역, 분자 진단 분야에서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00여개 국가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각 국의 고객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더 나은 일상을 계획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편한 검사와 신속한 진단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순간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하여 오늘의 안심과 내일의 기대, 일상 어디서나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OUR NATION

안양을 향한 '우리의' 이야기

04

FCANYANG
2025 K리그1 주요 이슈

05

OUR NATION
팬포토

06

Our Column
同苦同樂 : 동고동락

08

Our Interview - 1
김정현 선수 인터뷰

10

Our Interview - 2
김지훈 선수 인터뷰

12

'ㄱㅈㅎ' 형제
김정현, 김지훈 화보

14

FCANYANG 2025
2025 K리그1 잔여 일정



도전자의

정신으로

25.01.03 / K리그2 득점왕 모따 영입

25.01.18 / 2025시즌 주장단 선임
주장: 이창용 부주장: 김동진, 한가람

25.01.21 / 수비수 토마스 영입

25.01.23 / 미드필더 김보경 영입

25.02.16 / K리그1 첫 경기 (울산)
구단 최초 K리그1 승리

25.03.08 / K리그1 첫 홈경기 (김천)

25.03.30 / 김보경 K리그 200경기 출전 (전북)

25.04.06 / K리그1 홈경기 첫 승리 (강원)

25.04.16 / 코리아컵 4라운드 진출

25.04.26 / 김영찬 K리그 200경기 출전 (제주)

25.05.17 / 박종현 K리그 100경기 출전 (전북)

25.05.28 / FC안양 600호 골 (강원) / 마테우스

25.07.04 / 국가대표 수비수 권경원 영입

25.07.24 / 모따, 토마스 팀 K리그 올스타

25.08.31 / 구단 최초 K리그1 연승 달성





同苦同樂

K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안양, 첫 경기부터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며 이변을 일으켰다. 하나 역시 쉽지 않았다.
많은 면에서 K리그2와 달랐다. 1,2 라운드 로빈 동안 많은 부침이 있었다.
하지만 무릎 꿇지 않은 이유가 있다. 바로 '팬'들이다.

때론 힘들었지만, 함께 해 더 기뻐했던 순간을 되돌아본다.



K리그1 첫 승리,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꿈이 이루어졌다. 12년의 기다림 끝에 안양은 K리그1에
첫 발을 내디뎠다. 기쁨이 컸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도
예고됐다. K리그2 '우승팀'이지만, K리그1에선
'승격팀'이었다. 앞으로 상대할 모든 팀이 안양보다
강하단 뜻이었다.

설상가상 첫 상대는 K리그1 3연패를 달성한 울산HD
였다. 왕조 구축에 이어 '4연패'를 노리던 울산은 안양을
문수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안양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시작과 함께 팬들은 '안양 폭도맹진가'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고, 선수들은 '좀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끝내 울산은 안양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다.
신입생 토마스와 수문장 김다솔의 공이 컸다. 이에
질세라 모따도 존재감을 과시했다. 후반 추가시간 1분,
모따는 그림 같은 헤딩골로 안양의 첫 승리를 이끌었다.

홈 첫 승리, 믿어준 팬들이 있었기에

개막전 최대 이변을 만들어낸 안양이었지만, 아직 성장이
필요했다. 2라운드 FC서울과, 3라운드 광주FC를
상대하기 위해 원정길을 연이어 떠난 안양은 두 경기 모두
1-2로 패배했다. 한 점 차 패배는 아쉬움을 더했다. 4
라운드, 아워네이션으로 김천상무를 불러들인 안양의 홈
개막전. 13,787명의 응원에 힘입어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승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동진의 부상
또한 큰 손실이었다. 길어지는 연패, 성장통은 아팠고
부담감까지 더해졌지만 쓰러질지언정 무릎 꿇지 않았다.
다시 일어날 준비를 마치고 대구FC 원정을 떠나 1-0
으로 승리해 반전에 성공했다. 이어진 홈 연전, 전북
현대를 상대로 거둔 아쉬운 패배를 뒤로하고 강원FC를
불러들였다. 승리를 위해 치열한 승부를 펼친 두 팀,
선제골은 쉽사리 터지지 않았다. 양 팀의 공방이
계속되던 가운데, 후반 37분 최규현의 발끝에서
원더골이 터졌다. 추가시간엔 토마스가 하프라인부터
공을 드리블해 빼기골을 터뜨렸다. 세 경기만에 홈에서
팬들과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모따 주연, 신스틸러는 '2,054명'의 보랏빛 물결

안양은 1라운드 로빈 동안 5승 6패를 거두며 '돌풍'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안양은 2라운드 로빈에 들어 내리막길을 걸었다. 3-4일 간격으로 치르는 경기 일정에 체력적으로 부침을 겪었고 김정현과 최규현은 부상 때문에 제대로 경기를 소화할 수 없었다. 좀처럼 승리하지 못했다. 5월 성적표는 1승 3무 3패. 6월 A매치 휴식기 동안 안양은 '약속의 땅' 보은으로 향했다. 조직력과 힘을 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보은에서 돌아와 맞붙은 상대는 수원FC, '1호선 더비'였다. 안양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몰아쳤다. 하나 되려 수원에겐 일격을 당했다. 끌려가던 상황에서도 추격을 늦추지 않았다. 주인공은 모따였다. 후반전 헤딩으로 두 골을 터뜨리며 시즌 첫 '역전승'의 주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날의 '신스틸러'가 있었으니, 바로 '2,054명'의 원정팬들이다.

안양에 날아온 두 초대장

팀K리그와 뉴캐슬유나이티드의 맞대결을 앞두고 안양의 두 외국인 선수에게 초대장이 도착했다. 주인공은 모따와 토마스였다. 모따는 이번 시즌 새롭게 안양으로 합류해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다. 이적 당시 K리그2 득점왕 출신인 모따에게 'K리그1에서도 통할까?'라는 의문부호가 있었지만,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모따는 11골 3도움(08.31 기준)으로 K리그1 득점 순위 6위에 빛나고 있다. 모따가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라면, 토마스는 전천후 선수다. 1라운드 울산전 센터백으로 출전해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7라운드 강원전에선 후반 막판 빼기골을 기록하며 팀의 첫 홈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그의 역할은 센터백만이 아니다. 왼쪽 풀백부터 미드필더로도 출전하고 있는 토마스는 명실상부 안양의 '팔방미인'이다. 두 선수 모두 쿠팡 시리즈에 선발로 출전해 뉴캐슬을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는데 기여했다.

“안양이 없었다면, 저는 잊혔을 거예요”

김정현이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올해 안양은 '좀비 축구'를 앞세워 K리그1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이겨내겠다는 의미다. 좀비 축구의 선봉장으로서 상대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선수가 있다. 바로 김정현이다. 2024시즌 핵심으로서 안양의 K리그2 우승을 이끈 데 이어 이번 시즌 역시 주축으로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정현을 만나봤다.



김정현

백넘버 8

포지션 MF 미드필더

생년월일 93.06.01

K리그 199경기 14골

Q. K리그1 첫 경기에서 울산HD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어요.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를 보여주며 승리에 기여했는데 어떠셨나요?

확실히 시즌을 빨리 시작하기도 했고, 템포나 선수들의 개개인 능력이 다르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상대가 빨랐는데, 제치려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라도 놓자는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영상을 봐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마지막엔 또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경기들이 선수들한테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Q. 꿈같은 시작이었지만, 이후 3연패를 기록했어요. 당시 팀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3연패를 하긴 했지만, 선수들이 K리그1에 적응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안양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팀의 분위기가 단단하다는 것이예요. 연패를 하긴 했어도 형들과 감독님을 비롯해 모든 선수단이 하나로 뭉치는 힘이 커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Q. 18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 경기, 역전승 이후 기도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였나요?

전반전에 제가 공을 빼앗겨서 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후반에 들어갈 때 꼭 뒤집자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경기 막바지에 VAR로 승부가 뒤집어질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런지 다행히 이뤄졌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도 그런 걸 표현했던 것 같아요.

Q. 93년생으로서 팀 내에선 베테랑 측에 속하게 됐어요. 팀에서 김정현 선수의 역할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33살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엔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다른 팀이라면 정말 최고참이었을 텐데 여기에선 20대 후반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제가 맡은 역할은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경기장 안에서 보여주는 거죠. 라커룸에선 형들이 잘 잡아주고 있다 보니 그런 형들을 돕는 것이 지금의 제 역할인 것 같아요.

Q. 김정현 선수에게 안양이란?

이젠 정말 '집' 같아요. 여러 팀을 거쳤지만, 안양에선 정말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때론 그런 사랑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안양이 아니었다면, 저는 잊히는 선수가 됐거나 절대 이 위치에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양과 팬분들 덕분에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Q. 끝으로 팬분들께 한 마디 해주세요!

너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랑과 관심이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번 시즌 FC안양은 베테랑과 젊은 유망주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K리그1이라는 무대에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신인의 패기와 열정으로 안양의 후방을 책임지는 선수가 있다. 바로 김지훈이다. 이번 시즌 안양에 합류한 신인 수비수로서 차기 안양의 수비를 단단히 지킬 김지훈을 만나봤다.



Q. 이번 시즌 리그 개막전부터 바로 프로 데뷔전을 가졌어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나름대로 대학교에서 준비를 잘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동계 훈련을 거치며 아직 형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빨리 데뷔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끼기 보다 천천히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개막전부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며 경기장의 열정과 응원을 느낄 수 있었고, 내심 뛰고 싶다는 욕심까지 났어요. 감사하게도 출전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오랫동안 꿈꾸던 순간이 이루어진 것 같아 황홀한 기분이었죠.

Q. 현재까지의 자신에게 점수를 줄 수 있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

10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지난 반년 동안 스스로 몸 관리하는 법이나 프로 선수로서의 덕목을 어느 정도 깨우쳤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저라는 선수를 보여드릴 일만 남았다는 의미에서 '5점'을 주고 싶어요.

Q. A.S.U. RED의 응원 열정은 K리그 내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어떤 응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경기에 이기고 나서 팬분들과 같이 '떼떼떼' 노래를 부를 때가

가장 즐거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나 선수단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분이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Q. 나중에 어떤 선수로 성장하고 싶나요?

저는 (이)창용이 형이나 (김)영찬이 형 등 팀 내 고참 형들이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형들처럼 팀에 헌신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며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상향' 선수가 되고 싶어요.

Q. 앞으로 팬분들이 김지훈 선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단점 없는 대형 수비수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김지훈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팀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팬분들께서 늘 보내주시는 응원과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선수단도 힘입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 목표였던 상위 스플릿 진출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며 팀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백넘버 3

포지션 DF 수비수

생년월일 04.10.14

K리그 7경기 *2025년 데뷔

“지금까지가 아닌,
앞으로의 김지훈을 위한 5점입니다”

김지훈이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초성이 같은 안양의 '거자하' 형제,



안양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그린다.

FCANYANG 잔여 일정

09.21(일) / 안양 vs 울산 (울산문수축구경기장)

09.28(일) / 안양 vs 광주 (안양종합운동장)

10.05(일) / 안양 vs 강원 (강릉하이원아레나)

10.18(토) / 안양 vs 김천 (안양종합운동장)

FINAL ROUND / 추후 일정 공개



Manager 유병훈

도전자의 정신으로



모든 스포츠,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하여!



스포츠에 대한 진심,
열정 가득한 도전,
포기하지 않는 용기!

DOO
BETTER
SPORT

- CLOTHING SALES
- SPONSORSHIP & PARTNERSHIP
- MD LICENSE

www.vexxsports.com

@v_exx_official



in the spirit of a challenger
We're always like zombies